

< 첨부 > 보험회사의 개인형 퇴직연금 운영방안 설명자료

1. 검토 배경

- 새롭게 도입되는 개인형 퇴직연금시장에서 보험회사가 시장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시장진출 및 마케팅, 서비스, 상품운용, 자산운용 측면에서 운영방안을 제시함.
- 이를 위해 중장기 시장규모를 전망하고, 외국의 운영사례, 개인형 퇴직연금의 공급자인 퇴직연금사업자, 수요자인 근로자 및 자영업자들에 대한 운용실태 및 니즈를 조사·분석함.

2. 개인형 퇴직연금제도의 도입과 영향

- 근로자는 물론 자영업자,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이 가입할 수 있고 가입자가 원하는 경우 추가로 부담금을 납입할 수 있도록 현행 개인퇴직계좌제도를 개편한 개인형 퇴직연금제도가 2012년 7월에 도입될 예정임.
- 개인형 퇴직연금의 시장규모는 근로자를 대상으로 할 경우 2011년에 5조 3,410억 원, 2015년에 11조 4,481억 원, 2020년에 23조 3,459억 원, 2030년에 70조 7,125억 원으로 증가될 것으로 전망됨.
- 자영업자까지 가입대상을 확대하는 경우 2011년에 7조 6,932억 원, 2015년에 15조 2,607억 원, 2020년에 29조 5,970억 원, 2025년에 50조 7,579억 원, 2030년에 81조 7,782억 원으로 증가할 것임.

<표 1> 개인형 퇴직연금시장 규모 전망(2011~30년)

(단위: 억 원)

연도	현행 기준 개인형 퇴직연금시장 규모 전망(근로자)		전체 개인형 퇴직연금시장 규모 전망(근로자+자영업자)	
	시나리오 I	시나리오 II	시나리오 I	시나리오 II
2011	40,383	53,410	63,905	76,932
2015	86,559	114,482	124,685	152,607
2020	176,518	233,459	239,029	295,970
2025	318,140	420,766	404,953	507,579
2030	534,656	707,126	645,313	817,783

주: 1) 시나리오 I 은 유형별 적립금비중이 유지된다는 가정 하에 추정한 전망치임.

2) 시나리오 II는 유형별 적립금비중과 추세 등을 고려하여 추정한 전망치임.

- 개인형 퇴직연금 도입시 퇴직연금의 수급권 및 운용의 연속성 강화, 안정적인 노후자금 마련 등의 긍정적 효과가 나타날 것임.
- 또한 국민의 노후소득보장수준을 증대시키는 효과를 가져와 정부의 재정리스크 감소가 예상되며, 자영업자 등의 가입범위의 확대는 노후소득보장체계상의 사각지대 해소에 기여할 것임.
- 이와 더불어 다양한 금융상품의 출현, 은퇴관리자로서의 역할증대, 금융산업의 성장전인 등과 같은 부수적인 효과가 기대됨.

3. 개인형 퇴직연금 운영현황 및 실태

- 2010년 12월 말 기준으로 IRA 적립금은 전년대비 194.2% 증가한 3조 115억 원으로 은행이 67.4%의 비중을 차지하여 시장점유율이 가장 높고 다음으로 증권사(19.4%), 생보사(9.6%), 손보사(4.4%)의 순임.
- IRA의 적립금 비중은 전체 퇴직연금 적립금의 10.4%이며, IRA기업형과 IRA개인형의 비중이 각각 1.9%, 8.5%임.
- 퇴직연금사업자의 개인형 퇴직연금 시장진출 준비실태 등을 살펴보기 위해 영업 중인 전체 48개 퇴직연금사업자 중 28개사를 대상으로 설문조사 및 방문조사를 실시하였음.
- 조사 결과, 타 금융회사가 상대적으로 보험회사에 비해 개인형 퇴직연금시장의 진출에 보다 적극적이고 그 중요성을 강하게 인식하여 대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.
- 또한 현재 별도의 전담조직 계획을 수립한 금융회사가 많지 않지만 향후 개인형 퇴직연금제도 도입에 대비하여 별도의 운용조직을 신설하고 투자교육 및 재무설계서비스를 위한 시스템을 구축하는 데에 타 금융회사가 보험회사보다 적극적임.
- 타 금융회사는 보험회사에 비해 라이프 사이클형 상품개발, 업무제휴 등에 적극적이며 자산서비스 및 일괄서비스체계의 제공을 통해 상품 및 서비스 경쟁력을 제고하려는 경향이 현저히 나타남.
- 보험회사의 경우 설계사-대리점 등을 통해 영업력을 강화하고 개인형 퇴직연금 가입자의 속성과 니즈를 고려한 목표시장 진출이 요구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음.

4. 주요국의 개인형 퇴직연금 운영체계

- 미국은 직장 이동 시 퇴직연금의 세계혜택을 유지하면서 적립금을 전환할 수 있는 제도적

장치 마련을 위해 IRA를 도입함.

- 일본은 퇴직연금에서 소외된 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근로자는 물론 자영업자를 가입대상으로 하는 개인형 확정기여연금제도가 2002년 4월부터 시행됨.
 - 영국은 스테이크홀더연금이 2001년 4월부터 도입되었고 2005년 새로운 연금개혁안에 따라 2012년부터 개인연금계좌제도(PA: Personal Accounts)가 도입될 예정임.
 - 독일은 가입자가 납입하는 기여금에 대해 정부가 보조금 또는 소득공제의 방식으로 지원하는 리스터연금(Riester Pension)을 「2001 연금개혁법」의 시행에 따라 2002년에 도입함.
- 선진 보험회사는 건강보장가미 상품개발, 재무설계서비스 제공, 라이프사이클형 투자상품 운용, 신규가입자보다 기존가입자(중간정산자 등) 중심으로 경쟁력 차별화를 시도하고 있음.
- 또한 다양한 형태의 개인퇴직계좌제도 개발과 도입을 통해 가입자의 세분화된 니즈에 부합하기 위해 퇴직연금의 사각지대 해소 차원의 노력이 병행되고 있음.
 - 특히 개인퇴직계좌제도를 통해 개인의 안정적인 노후소득보장이 이루어지도록 제도를 적극 활용(노후소득보장의 자기 책임)함.

5. 개인형 퇴직연금 가입자의 인식 및 니즈 분석

- 개인형 퇴직연금의 잠재 수요자인 근로자와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개인형 퇴직연금 니즈 및 인식실태, 추가가입 니즈, 경쟁력인식 정도, 자산운용 패턴, 향후 제도개선 과제 등과 관련된 설문조사를 실시함.

<표 2> 설문대상 및 방법

구분		세부 내용	특징
설문 대상	근로자	20대 이상 근로자 563명	수도권거주
	자영업자	20대 이상 자영업자 337명	
설문 표본 수		900명	-
설문조사 방법		면접조사	
설문조사 형태		기입식, 단답식, 체크식, 5점 척도식	
설문조사 기관		(주)사라홀딩스	
설문조사 기간		2010. 11. 10 ~ 2010. 11. 30	

□ 분석결과 및 시사점

- 개인형 퇴직연금제도의 인식실태는 미흡하지만, 대체적으로 향후 가입할 의향이 있다고 응답하고 있어 향후 교육 및 홍보 등이 충분히 이루어지는 경우 제도 가입이 크게 증대될 것임.
- 가입의향 조사 결과, 67.1%(3.72점)가 제도의 필요성(자영업자 59.1%, 근로자 72.4%)을

- 인식하고, 자영업자 56.6%, 근로자 72.0%가 제도 가입 의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남.
- 통계분석 결과, 30대 및 40대 이상인 연령층에서 제도 가입의사가 높고, 남성, 고학력자, 건강한 사람이 가입의사가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, 고소득 근로자와 제도에 대한 인지수준이 높을수록 가입할 의사가 높게 나타남.
 - 근로자의 50% 이상이 중간정산, 이직, 퇴직에 따른 은퇴자금을 개인형 퇴직연금에 가입할 의사를 보여 장기적으로 개인형 퇴직연금시장이 주력시장으로 부상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남.
 - 퇴직연금사업자 선호도를 조사한 결과에서는 은행, 보험회사, 증권·투신사 순으로 선호하는 것으로 조사됨.
 - 퇴직연금사업자의 3대 핵심경쟁력인 장기적·안정적인 자산운용능력, 전문성, 사후관리 서비스에서 타 금융권보다 보험회사를 선호함.
 - 퇴직연금사업자 선정 시 고려사항은 사업자의 장기운용능력(59.0%), 재무건전성 등 안정성(37.9%)의 순으로 나타남.
 - 금융회사 경쟁력 인식을 평가한 결과, 생명보험회사는 전문성(3.65점), 교육 및 컨설팅 서비스(3.69점), 다양한 운용상품 제공(3.60점)에서 상대적으로 경쟁력이 있는 것으로 조사됨.
 - 퇴직연금수요자는 사업자 선정 시 장기운용능력을 많이 고려하는 것으로 나타나 보험회사의 경쟁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됨.
 - 반면에 전문성, 교육 및 컨설팅 능력 등에 대한 우선순위가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나 보험회사의 선정 요인에 장애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 존재함.
 - 퇴직연금 미가입자들은 장기운용능력(20.97%), 운용성과(15.99%), 재무건전성(14.98%), 교육 및 컨설팅서비스(10.15%)의 순으로 많이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.
 - 가입자를 대상으로 선호하는 모집채널을 조사한 결과, 상당수의 응답자가 투자권유대행인 등과 같은 모집채널보다 보험설계사를 통해 가입할 의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남.
 - 가입자의 투자운용성향을 조사한 결과, 원리금보장상품 비중을 선호하고, 연령대가 증가할수록 안전자산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남.
 - 통계분석 결과, 수입이 많을수록 안정적인 자산운용을 보다 선호하고 건강할수록 보다 위험자산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남.
 - 가입자의 74.4%는 건강보장을 가미한 개인형 퇴직연금 선호도를 보이고 있으며, 연령대가 증가하고 건강한 그룹에서 선호도가 높게 나타남.
 - 개인형 퇴직연금 가입자에 적합한 맞춤형 재무설계서비스를 향후 어떻게 제공하느냐 여

부가 향후 개인형 퇴직연금시장에서 경쟁력을 강화하는데 가장 중요한 선결과제가 될 수 있음.

- 가입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, 약 32%가 전문재무설계사에게 비용을 지불하고서라도 서비스를 받을 의향이 있는 것으로 조사됨.
- 은퇴연령기에 가까운 40대 이상 연령층의 선호도가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자영업자의 경우 수입이 많을수록 재무설계서비스에 대한 선호도가 높게 나타남.

6. 개인형 퇴직연금 운영방안 및 과제

가. 기본방안

- 기본적으로 운영방안 수립은 개인형 퇴직연금시장의 특수성, 성장성, 대체성, 수익성 등을 사전에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함.
- 특수성: 개인형 퇴직연금 영업은 단기영업이 아닌 장기 영업이며 자금원천이 퇴직금 등과 같은 은퇴자금 중심의 은퇴영업이라는 특징을 지님.
- 성장성: 자영업자 등 신규가입자만을 고려하는 경우에도 2020년 29조 6,000억 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는 신규 잠재적인 시장임(특수형태근로종사자, 중간정산자, 이직자, 명예퇴자, 은퇴자 등 감안 시에는 성장성 증대).
- 대체성: 개인형 퇴직연금과 기존 연금보험과의 대체효과가 미국의 경우처럼 매우 미미한 독립적인 시장의 성격을 지님.
- 이러한 특수성, 성장성, 대체성 등을 감안할 때 보험회사는 기업의 미래가치 제고 차원에서 시장진출을 위한 보다 체계적인 운영방안(시장진출, 서비스 등)을 마련해야 할 것임.

나. 세부방안

<시장진출 측면>

- 대형사는 DB 및 DC형제도와 함께 병행전략의 추진이 바람직하고, 중소형사의 경우 특화전략으로 개인형 퇴직연금시장에 진출할 필요가 있음.
- 특히 중소형사는 자영업자 중심 진출, 가입단계별 가입자를 고려한 시장진출의 차별화가

절실히 요구됨.

- ☐ 또한 DB형에 초점을 맞추고 운영하는 보험회사는 처음부터 자영업자에 보다 초점을 맞추어 시장에 진출하는 것이 바람직함.
- 신규가입자, 중간정산자, 이직자, 명예퇴직자, 일반퇴직자 등처럼 기업에 입사하여 퇴사하는 단계에 이르기까지 대상자를 분류하고 이들의 특성을 고려한 시장진출방안 모색이 필요함.

<마케팅 측면>

- ☐ 개인형 퇴직연금 가입자 대상을 분류하여 가입자들이 속한 단체나 협회 중심으로 한 마케팅이 이루어질 필요성이 존재함.
- 또한 보험설계사 및 대리점에게 퇴직연금 권유 및 판매허용이 이루어지므로 전국적인 영업망을 활용한 개인영업 중심의 마케팅이 효과적임.
- ☐ 이와 더불어 고령화에 따른 노후대비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순수보장 중심의 마케팅에서 노후소득보장 중심의 마케팅으로의 전환이 요구됨.

<상품운용 측면>

- ☐ 가족종합건강 개인형 퇴직연금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 장기적으로 개인형 퇴직연금에 다양한 건강보장상품을 카페테리아플랜 형태나 특약형태로 조합된 상품개발에 보다 관심을 가질 필요성이 존재함.
- 특히 보험회사는 원리금보장상품에 실적배당형 및 건강보장을 가미한 상품, 원리금보장상품에 건강보장을 가미한 상품에 대한 선호도가 높다는 점을 감안하여 다양한 결합상품을 개발할 필요가 있음.
- ☐ 또한 개인형 퇴직연금 가입자의 진입단계를 고려하여 상품을 보다 차별화하는 전략이 절실히 요구됨.
- 초기가입자, 중간가입자, 은퇴가입자 등과 같이 가입자를 개인형 퇴직연금 가입단계별로 세분화하여 이들의 니즈에 부합한 상품을 개발하는 것이 바람직함.
- 이와 더불어 라이프사이클을 고려하여 연령대별로 적합한 상품조합이 이루어지도록 할 필요가 있음.

<서비스 측면>

- ☐ 근로자에 비해 상대적으로 연금제도에 의한 노후대비가 부족한 자영업자 등을 대상으로 종합적인 재무설계서비스의 제공이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함.
- 즉 개인형 퇴직연금 가입자에게 적합한 맞춤형 재무설계서비스를 개발하여 서비스의 경쟁력을 보다 제고시켜 나아가야 할 것임.
- ☐ 이와 더불어 개인형 퇴직연금 가입자에 대한 투자이해를 돕기 위해 체계화되고 철저한 투자교육서비스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음.
- 보험회사는 인터넷, 홈페이지 및 이메일 등을 통해 개인형 퇴직연금 가입자들에게 유용한 정보를 적극 제공하기 위한 IT관련 서비스 차별화가 요구됨.
- ☐ 이와 더불어 가입자 대상으로 아웃소싱 등을 통해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컨소시엄 형태로 전문서비스 제공회사를 공동 설립하여 운영하는 방안의 마련도 검토할 필요성이 존재함.

<자산운용 측면>

- ☐ 개인형 퇴직연금 가입자를 대상으로 별도의 자산운용체계를 수립하고 가입자의 특별한 언급이 없는 한, 다양한 상품을 하나로 묶어서 패키지화한 디폴트형 펀드상품을 개발할 필요가 있음.
- 그 이유는 전체가입대상자의 약 47%가 기본형 펀드에 가입할 의향이 있다고 응답한 반면, 단지 9.4%만이 가입의향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 디폴트형 펀드에 대한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임.
- ☐ 또한 보험회사는 라이프사이클별·직업별에 부합한 투자상품을 조합하여 자산운용의 경쟁력을 보다 제고하는 것이 바람직함.
- 20대는 37.3%, 30대는 40.3%, 40대 이상은 41.7%의 원리금보장상품 운용비율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나 라이프사이클에 따른 투자자산 선호 변화를 자산운용에도 적극 반영할 필요가 있음.
- ☐ 이와 더불어 보험회사는 원리금 보장형, 채권형, 채권혼합형 투자상품 개발에 초점을 맞추되, 장기적으로 주식혼합형, 주식형 투자상품 개발에 주력할 필요가 있음.
- 특히 원리금보장형, 채권형, 채권혼합형 투자상품에 대한 경쟁력을 확보하면서 장기적으로

는 주식형 등과 같은 수익성중시 투자상품에 대한 운용경쟁력을 제고하는 노력이 요구됨.

다. 정책과제

- ☐ 퇴직연금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노후소득보장제도로서의 개인형 퇴직연금제도가 역할을 담당하기 위해 정부의 정책적 개선이 요구됨.
 - 미국이나 일본처럼 개인형 퇴직연금 가입자의 특성을 고려하여 연금세제혜택의 수준을 보다 차별화하는 제도개선이 필요함.
 - 또한 자영업자의 연금세제혜택 수준을 상향조정하거나 가입자의 연금소득공제 한도설정, 연금수급기간의 설정, 개인형 퇴직연금 가입 후 임의폐지 금지 등이 제도적으로 검토될 필요가 있음.
- ☐ 특히 제도적으로 기본형 펀드(디폴트 펀드)제도를 도입하여 보다 안정적으로 자산운용이 될 수 있도록 할 필요성이 있음.
 - 개인형 퇴직연금을 인식하고 있는 사람이 가입비율도 높게 나타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개인형 퇴직연금제도의 도입을 정책적으로 적극 홍보할 필요가 있음.
- ☐ 또한 일시금 또는 5년 이상 연금지급형태에서 연금으로의 전환을 적극 유도하기 위해 연금세제혜택을 전제로 한 단일화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.